

전북경찰, 교통사고 주의보 발령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 전년대비 14% 늘어

전북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신호위반과 과속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에 따르면 이날 17일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전년대비 8%(14명)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자는 49명으로 14%(6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전북지역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비중은 33%(사망자 112명 중 37명)로 최근 3년 평균 33.4%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비중이 39%(사망자 31명 중 12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의 보행자 사망사고 세부 분석 결과 사고 발생은 보행자 이동이 많고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야간시

간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보행자 과실이 65%, 운전자 과실이 35%로 보행자의 부주의가 운전자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행자 사망자 비중도 높아져 이 중 50~60대 노인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전광판을 사용해 교통안전 문구를 전송하고 보행자 안전 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보행보호용의자차 사고예방을 위해 야광반사지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찾아 보행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청

소년 교통안전 홍보단 운영 및 어린이 대상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자 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앞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안전한 보도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흰색과 같은 밝은 옷을 착용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물놀이로 무더위를 썩~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19일 오후 어느 공원에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주 주부환경감시단, 한옥마을 거리조성 구슬땀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회장 조정희)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전주한옥마을 거리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몬리플래닛'에 일본 홋카이도와 중국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명소 3위로 소개될 만큼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한옥마을 환경지킴이를 자처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과 휴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집중 정화활동을 벌이며, 아시아 대표관광명소인 한옥마을의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주부환경감시단은 여름휴가 시즌과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겹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방문객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들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적치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부환경감시단은 20일부터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인파가 몰리는 주말 등에 집중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한옥마을 상가에 대한 분리배출 요령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술 취해 잠든 여성 금품 훔쳐

술에 취한 여성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9일 노상에서 놓인 평상에서 잠든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이모(32)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밤 11시30분 남원시 노암동 한 건강원 앞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A(27·여)씨의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다.

또한 그는 훔친 카드로 유흥비 120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오토바이 훔친 40대 남성 벌미

심야시간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9일 차량 및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최모(43)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에 남원시 A(48·여)씨의 집 마당에 있는 125cc 오토바이 1대(시가 250만원 상당)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 11일까지 남원시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오토바이 2대, 스타렉스 화물차량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발견해 시동을 걸어 훔쳐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전자발찌 차고 피해자 집 찾아가 50대 징역형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 피해자 집을 찾아가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9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혐의(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께 성범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다니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경고를 받고 전자발찌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5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친환경 전기 이륜차 시범운행

소음·배출가스 없어

전주시가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시범운행에 나선다.

전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환경 악화 개선책으로 친환경 및 기동성이 확보된 전기 이륜차 8대를 구입해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이륜차는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일반 전기콘센트에 직접 꽂아 쓸 수 있고, 무소음, 배출가스 무배출 등 편리성과 친환경성이 장점이다. 시는 시범운행을 거쳐 배달 음식점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엔 구입하는 전기이륜차를 하천, 재해시설물 점검 등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장 활동 부서에 해당부서들은 그간 기존 차량을 활

용할 경우 주차여건과 도로 폭 협소 등으로 시민과 접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기이륜차를 활용할 경우에는 기동력이 확보돼 발생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시민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3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시설 5대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총 18대로, 충전시간이 6시간 정도 소요되는 완속 충전시설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급속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전기자동차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냉방운도 유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나서

전북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촉진 공동선언문 채택

전주시가 장애인 맞춤형 취업·직업 훈련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 이하 공단)와 전주지역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소재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고용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전주시 등락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공단은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전주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주시 소재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가능 직무 발굴, 취업알선,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와 공단은 이날 전주호텔트윈에서 김승수 시장과 지사장, 전북대학교병원 등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15%를 중증장

애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주)강동오케익의 장애인고용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주)강동오케익은 전체 상시근로자 47명 중 장애인근로자가 23명(중증장애인 17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48.9%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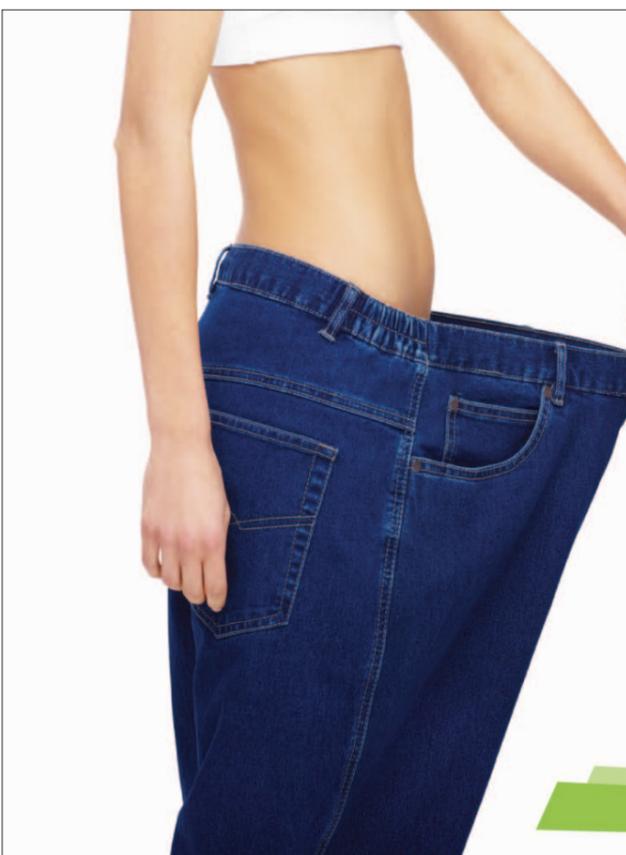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전주지역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와 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관용을 일지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확대와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직업 훈련 제공, 맞춤형 일자리 알선까지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은 이날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쉽고 편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장애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되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